

□ 심리학적으로 살펴본 채팅

사이버 공간속 새로운 정체성 찾기

컴퓨터에 투사되는 심리... 구체화된 만남 이뤄

황 상 민

(세종대 심리학과 교수)

보스턴의 작은 서점인 〈브룩스〉의 여종업원 비키 베네트(21)양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가끔 인터넷의 성경험담을 올려놓는 토론장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와 함께 의견을 띄워 놓곤 한다. 그녀가 요즘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실재공간이 아닌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만 만난다. 비키는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단지 컴퓨터 통신망에서 처음 만났을때 "1백 85cm 정도의 키에 금발, 약간 마른 체격"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부터 그의 모습을 어렵게 짐작할 뿐이다. 물론 그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르는 자막이 그의 목소리를 대신해 왔다. 그들은 화면에 찍혀지는 문자를 통해 색스를 나눈다. 비키는 사이버섹스가 폰섹스와는 다르다고 한다. 저질스러운 얘기만 무턱대고 늘어놓는 싸구려 폰섹스가 몸을 파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셈이라면 사이버섹스는 마음에 맞는 상대와의 데이트라는 것이다 (97/03/31 19:36:07, 사이버 공간의 성윤리 문제를 다루는 사이버

기사, 천리안 캠퍼스 매거진, ZPICAM21@chollan.net).

이런 상황은 거의 공상과학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의 체험을 현실처럼 느끼는 것은 사이버 펄크족이나 해크족들과 같은 일부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가 이제 30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이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해져가는 상황을 의미한다.

노출없이 타인과 접촉

그러면,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교류에 대해서 심리학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인간관계를 특징지을 때, 현실세계에서의 만남이란 직접적인 대면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관계나 교류란 채팅이나 메시지의 교환이다. 이런 교류에서 사람들은 비교적 자신에 대한 노출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으며, 이런 익명성은 현실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인간관계를 나타내게 한다. 이 관계의 핵심은 바로 개인의 정체성의 변화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체성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머드(mud) 게임이다.

현실세계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창조적 경험을 하는 머드게임에서는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창조할 수 있다.

개인의 자신의 모습을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하는 경우는 머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머드게임이 가상적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면, 현실세계와 가장 유사하면 저도 익명성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고 시험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바로 채팅이다. 이 사이버 교류에서는 현실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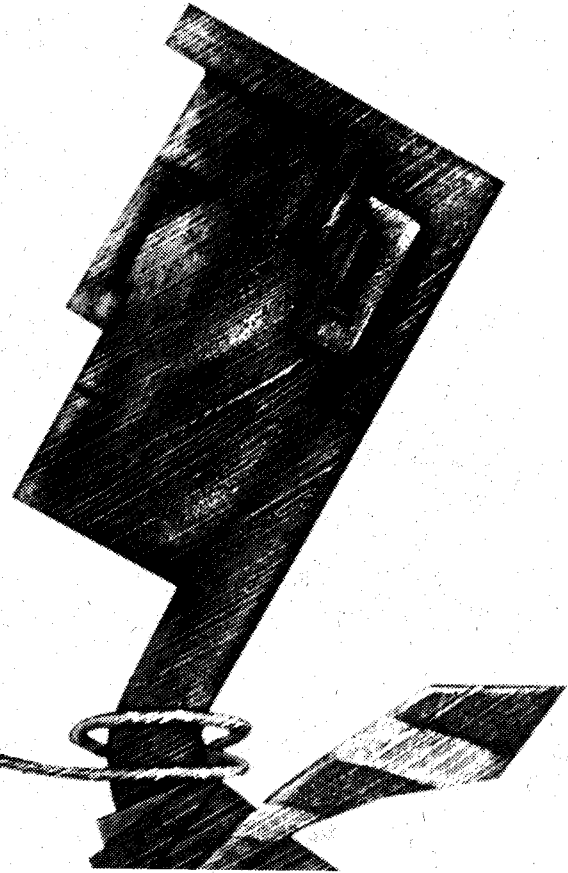
또 다른 공간 속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데 더 현실감이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다른 대상과의 접촉 경험에서 얻게 되는 것은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커다란 정도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게 된다. 이런 경우 채팅은 자신의 억제된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되는 경우도 발견하기도 한다. 요즘 인기있는 '접속'이라는 영화에서는 바로 채팅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의 만남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화면에 표현되는 내용은 그 자체로는 혼란스러운 자신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적인 자아를 위해 현실보다 훨씬 안전한 만남이기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이런 경우, 채팅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은 마치 대화하는 사람들의 내면적 속성이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어지는 곳이 된다.

채팅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화에는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가능한 거칠게, 가능한 통제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작용한다. 특히, 각각 다른 채팅 대상자에게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가능한 한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신의 변신의 모습 속에서 경험하는 우월감과 통제감의 환상 때문이다.

현실보다 안전한 만남

현실세계에서 폭주족들이 거리를 주춤거리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핑계로 스팟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나친 음란성이나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행동, 그리고 거친 표현 등으로 억제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장난감이나 인형으로 하나의 놀이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구체적인 성격이나 역할을 통해 하



나의 놀이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기의 모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마치 나르시스의 경험과 같다. 나르시스의 경험이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된 자신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매료는 바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 자신이 컴퓨터에 무엇을 지시할 수 있고 이것은 가상적 세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명창한지, 또는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와 같은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신의 정체성 발견과정이며 복합 정체성의 창조과정이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를 자신의 정신 세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려는 상황에 변화가 생겨난다. 이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성장과 열망 그리고 감정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자신의 모습은 바로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공간 저편에 존재한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자신의 모습은 허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처럼 공동체로 존재하며, 이 속에서 구체적인 생활과 만남이 벌어지는 것이다.

□ 커뮤니케이션학적으로 살펴본 채팅

예견된 지구촌 공동체

개인과 사회, 개인과 개인간 연결고리 형성

조 수 선

(중앙대 부설 언론연구소 전임연구원)

볼을 이용하고 기호를 만들기 시작한 원시의 인류들로부터 인쇄술을 거쳐 전화와 전파매체가 대중화되고 오늘날 유무선이 합쳐진 시공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 커뮤니케이션 욕구는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다. 특히 CMC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한 통신공간에서의 대화, 즉 채팅은 현실공간의 영역을 초월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실공간 영역초월

컴퓨터를 이용한 채팅의 발단은 초기의 CMC 기술의 개발에서 유래된다. 1970년대 초기에 미국에서 시작한 컴퓨터 네트 연구계획의 일환인 패킷 스위치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각 정부기관에 있는 몇 개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ARPANET (Advanced Research Network Project Agency Network)이라는 컴퓨터 통신망이 형성되었다. ARPANET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던 과학자들은 곧 서로의 의견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후 몇년 지나지 않아 다른 공식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컴퓨터망이 건설되어 합류해 있었고 상업통신망까지 이 망이 건설되어 현재의 인터넷으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시작은 매우 소박하였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대한 인터넷상에서의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써 확대되어졌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부재

컴퓨터상의 채팅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물론 원한다면 실제이름을 교환한 상태 그리고 이미 알고있는 대화자들간에도 가능하며 이러한 종류의 채팅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채팅에 있어서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Nonverbal Communication)의 부재, 예를 들어 웃는 표정, 우울한 표정, 울음, 놀람, 박수, 손짓, 인사등 대면 커뮤니케이션 상에서만 가능한 표현의 절여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소위 전자기호를 이용한 (:), (.), (o), ? 나! 의 계속적인 표현방법 등의 개발로 극복되어 지고 있다. 인간관계의 발전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



▲유니텔 초기화면

나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시키는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

채팅을 통한 개인의 인간관계의 확장은 또한 개인과 사회 사이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개인은 전통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전자공간상의 인간관계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에서 형성된 인간관계가 모여서 개인의 공동된 관심사가 집합되어 하나의 동호회 또는 공동체가 형성된다.

초기의 채팅은 앞서 말했듯이 몇몇 과학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컴퓨터 보급의 대중화와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채팅을 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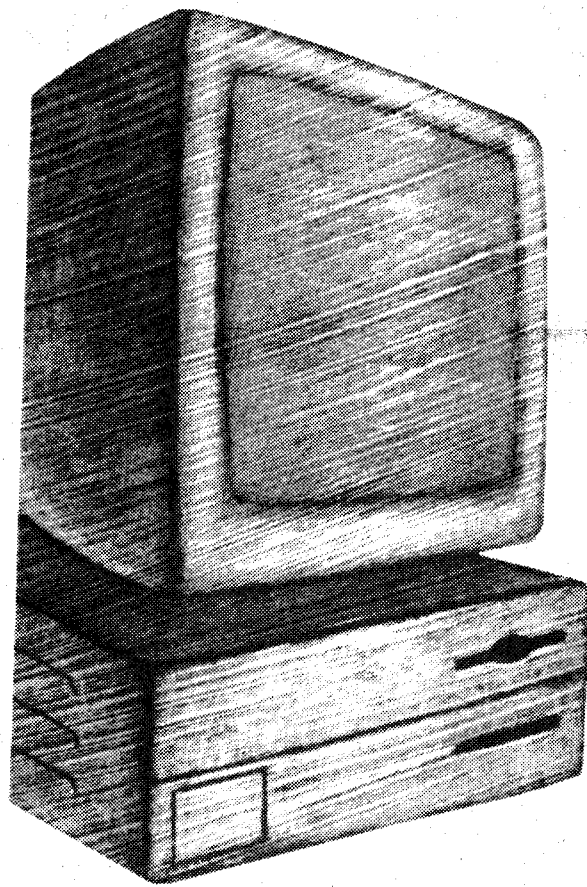
전자공간상의 인간관계

간관계가 다시 보통인들의 특별한 관심과 이익을 위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수백여개의 크고 작은 통신상의 모임이 통해 수많은 채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나 오락, 위안, 충족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관심사를 갖고 모이게 된다면 메트로한이 예견된 지구촌 공동체(Global Village)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속의 물리적 개인들이 자행하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의 사용, 상대 비방, 욕, 모욕 등으로 인한 채팅문화의 선정성과 비인간성화 또는 채팅의 세계에만 몰입,

채팅문화 부정성 최소화해야

중독되어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정체성을 혼돈하는 부정적인 현상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이스비츠가 제시한 high tech/high touch원칙에 의하면 인간세계를 메마르게 하는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인류는 그 반대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인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인간소외를 배제하는 기술로 발전시킨다 했다. 따라서 채팅문화에 의한 부정적인 현상을 최소화시키는 것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들의 몫이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1999 경희창학반세기 미래를 연다 세계를 만든다

비전제시 1999 - 경희의 미래를 예감한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경희를 밝힙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9학기 등록금, 모교발전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장학금 되돌려 주기 운동

영원히 변치 않는 교적,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되돌려 줍시다.

■대 상 : 경희가족(동문,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독지가, 기업, 기관, 단체 등

■기부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기타자산(부동산, 기타), 도서자료, 실험실습기자재등

■일시 및 분할 납부 : 일시 또는 월납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또는 단체별(예 : 직장/지역동문회 등)

• 각 학과/대학(원)별 특정목적기부금으로 지정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서울은행 17301-2710-209

농협 031-01-396711

우체국 012336-0025556

한일은행 070-084146-13-101

외환은행 131-13-10336-6

평화은행 044-01-001-286

경희사랑저금통기금(서울은행) 17308-9505323

■발탁기금 납부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약정서에 기재하신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금을 출원하시고자 할 때에는 일시에 출원하거나, 약정하여 원하시는 횟수대로 분할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 우편환 또는 전신환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직접 찾아 뵙겠습니다.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가능합니다.
- 유산이나 기타 소유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헌납하실 수 있으며 모든 법적수속과 관련비용은 학교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희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경희가 세계 무대로 달려 갑니다

경희가족과 함께하는 가을콘서트

서울캠퍼스 교정에서 모두가 하나되어 경희의 자긍심을 느끼고 다가오는 1999년 개교50주년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선음악회가 열립니다. 동문연예인, 방송인들이 자진 참여하여 개최되는 콘서트에서 무르익은 가을 하늘 아래 솟아오르는 경희사랑의 멜로디를 느껴봅시다.

■일 시 : 1997. 10. 16(목) 18 : 00

■장 소 : 서울캠퍼스 노천극장

■참석대상 및 인원 : 학생, 동문, 교직원, 지역주민 초청

■참가연예인 : 권인하, 변진섭, 강산애, 일기예보, 신형원,

컬트삼총사, 장필순, 리아 외

(130-701)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1 Tel : 961-0931/2 FAX : 961-0906

대외협력실 / 개교50주년기념사업회